

[문의가 많아 보충 설명드립니다]

○ 모 언론 「법무부, 한동훈 미국 출장경비 내역 공개 거부... “국익 해칠 우려”」 기사 관련입니다.

○ 법무부는 2022. 8. 7. 접수된 정보공개청구*에 대하여 2022. 8. 22. 비공개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.

* ‘지출일시, 지출금액, 지출명목, 지출장소 등 세부집행내역과 이와 관련된 지출증빙서류’ 공개청구

○ 이와 관련하여, ▲ 법무부는 다른 정부부처와 동일하게 ‘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’ (btis.pmp.go.kr)에 ‘총 여비, 운임, 체제비, 준비금 및 기타비용 등’ 을 공개한 바 있고, ▲ 다만, 이번에 공개청구한 ‘세부집행내역 및 지출증빙서류 등 공개청구’ 와 관련하여, “법무부는 과거 정부를 비롯하여 유사한 역대 장관 출장 등 상세내역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과거와 동일한 정보공개기준을 적용하여 같은 사유로 비공개 결정하였음” 을 알려드립니다.

※ 이번 법무부장관 미국 출장은 전례에 비해 출장단 규모 최소화(실무자 3명만 수행)하여 불요불급한 예산 대폭 절감 (출장단 총 4명, 환율과 물가 상승 및 코로나로 대폭 인상된 항공료를 포함한 경비 합계 4,840만원)

※ 과거 장관 국외출장의 경우, ‘워싱턴 D.C., 뉴욕 6박 8일 출장’ 시 총 6명의 출장단이 합계 7,873만 원 상당을 경비로 사용, 차관 국외출장의 경우 ‘프랑스, 스페인 8박 9일 출장’ 시 총 9명의 출장단이 합계 9,106만 원 상당을 경비로 사용